

WWW.buddhatv.com

불교인터넷TV 12월 개국

교계뉴스·선만화 프로등 마련
가상공간서 실행활동도 가능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안방에서도 법회와 법문 및 다양한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밀레니엄시대를 앞두고 교계 최초의 인터넷TV가 개국될 예정이다. 눈길을 끌고 있다.

12월1일 개국을 목표로 특집 프로그램을 비롯해 뉴스, 음악, 간화, 사이버 법당 등 인터넷 환경에 발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TV인 BIT(Buddhist Internet Television)가 바로 그것. 현재 웹디자인과 웹프로그래밍 작업에 착수한 BIT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상대한 다각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새로운 포교 매체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임동민대표겸 책임프로듀서를 비롯해 시스템엔지니어, 웹디자이너 등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BIT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BIT뉴스 △한국의 불교문화 △음악방송 △선만화 △불교교양강좌 △사이버법당 등 10여 종류이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컴퓨터만 켜면 예불 및 독경 소리가 흘러나오며 고승들의

설법을 동화상으로 제작 방송해 사찰에 가지 않아도 가상공간에서 모든 실행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프로인 '사이버법당'이다.

이외에도 신세대 포교를 위해 VJ를 기용해 경직되기 쉬운 채널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BIT는 영상물제작 방송의 외에도 개인 휴대폰을 이용한 불교 경전의 문자 전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동민대표는 "2000년대 초까지는 인터넷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일 만큼 인터넷 포교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포교 방법이 고려되지 않고서는 불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인터넷TV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월부터 실험방송에 들어가는 BIT는 불교 포교를 위해 방문하는 네티즌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며 일부 프로에 한해서 국제 포교를 위해 영어방송도 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opia.com)

“기록-구비전승류 통합정리”

동국대 전자불자학 설립기념 세미나
임기중교수 '불전전산화 방향' 제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으로 한국불전 소개를 하고 있는 동국대 전자불자학연구소(소장 보광)가 한국불전 전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화두로 설립 기념 세미나를 6일 개최했다.

"21세기의 불전 전산화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불전 전산화의 범위와 방향'을 발표한 임기중 교수(동국대)는 한국불전의 개념을 정리하고 전산화를 위해 전자불자연구소 뿐만 아니라 동국대 내의 전문 인력 활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가 제안한 한국불전의

개념은 불교철학 신화 민담을 포함한 구비전승계와 고려대장경류 한국불교전서류 한국불교사서류 등 기록전승계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는 15세기 한글불전이나 한글 불교가사와 같은 한글불전 전체가 한건도 누락없이 모두 정리돼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전산화 부분에 있어서 임 교수는 한국불전 정보화를 다섯단계로 나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한국 불전 총 목록 작성, 두 번째는 한국불전의 원전을 확정하고 각 불전별로 정밀한 대교표(對校表) 작성, 세 번째는

한국불전 데이터 베이스 구축, 네 번째는 한국불전 정보 베이스 구축, 다섯 번째는 한국불전 데이터 베이스와 정보 베이스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내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의 단계이다.

임 교수는 "동국대의 모든 인력을 활용해 추진한다면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취가능성은 물론 정보화의 내용 또한 아주 바람직한 모험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언어 불교용례 사전의 전산화"를 발표한 이종철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신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한자, 우리말 등으로 구성된 다언어 불교용례 사전 편찬의 첫 단계는 불교학 분야의 기본 문헌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이라며 "번역후 우



동국대 전자불자학연구소 설립기념 세미나
21세기의 불전 전산화 방향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려시대 대장경의 역사·보광스님 △고려 대장경의 인터넷 검색 및 열람·운용석 실장(고려대장경연구소) △한국불교전서 전산화에 대해·이용규 이금석 홍영식 교수(동국대) 보광스님 등이 발표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불교음악회 가면 가을을 느낀다



가을을 맞아 고운 선율에 불식을 키우는 음악회가 다채롭게 마련된다. 지난해 11월 열린 '진관사 산사음악회'.

진관사·관문사·나눔의 집 등서 열려

깊어가는 가을 뭉클벌레 소리 들리는 산사에서 고운 선율을 만나보자.

은평구 진관사는 16일 진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오후5시 '제2회 산사의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진관사합창단의 '참회합니다' 이 작은 생명' 등 찬불가 합창과 불교 전통무형문화재 전수생 스님들이 법패 및 바라춤 등 불교음악의 정수가 공연된다. 2부에서는 중앙국악실내악단의 '죽연주' '경기민요' 등 전통민요 연주와 성악가인 범조스님의 '벚노래' '한오백년' 등이 연주돼

관객들의 흥을 돋구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02)359-8410

17일 오후1시 일문군 '위안부' 역사관 야외공연장에서는 나눔의 집 주최로 '보은의 다례연·차와 우리 음악과 할머니와의 만남'을 주제로 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국악연주와 살풀이 춤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0347)768-0064

이외에도 천태종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24일 오후2시 '전국 합창단 찬불가 제전'이 마련된다. (02)3460-5300

김주일 기자



조소 중기에 제작된 목조관음보살좌상.

관음사 관음보살좌상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관음사의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왕벚나무자생지, 북제주군 선홍병뒤굴과 북촌동굴 등 문화유산 4건을 도문화재로 각각 지정했다.

유형문화재 16호로 지정된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7세기에 제작된 경북 예천의 국가보물 986호 용문사 목각탱 관음보살상과 비교할 때 부드러운 양감을 사용한 점은 비슷하나 눈, 코, 입에 단아한 미소를 띄게 한 표현방식은 더 돋보인다는 것이다.

또 관음사 경내의 왕벚나무 4그루는 100년 가량 군락을 이뤄 자생하는 데다 꽃의 형질도 우수해 문화재로 각각 지정됐다. 이외에도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병뒤굴은 용암구와 용암관, 용암산단 등 다양한 생성물이 형성돼 지질학적 보존가치가 인정돼 지정됐다.

고려불교공예품 '한자리에'

31일까지 청주박물관 '고려공예전'



최선보이는 사보사 출토 고려 '금강령'과 '청동수반'.

국립청주박물관은 4일부터 31일까지 '99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기념 '고려공예전'을 국립청주박물관 별관에서 연다.

전시품은 지난 93년 청주시 흥덕구 사적동 무심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출토된 사보사 유물 청동법종 청동금고 금강령 등 충북 지역에서 출토됐던 고려시대 공예품 120여점.

사보사 출토 유물은 부식이 심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3년간 보존과학처리를 거쳐 이번에 처음 선보이게 된 것으로 21세기를 앞두고 보는 고려시대 유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전시는 불교공예와 일반공예로 나눠 꾸며진다. 불교공예는 법음구, 공양구, 생활용구 등으로 구분해 같은 유형의 유물을 비교전시하고, 일반공예는 도자기, 동경, 금속유물 등의 일상용구를 종류별로 전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전을 기념해 공개강좌도 마련한다. 강좌는 16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을 초청 '청주 사보사 유물의 성격과 의의'에 관해 강의를 듣는다.

옥천사 유물전시관 개관

경남 고성군의 신라 고찰 옥천사(주지 호암)가 유물전시관 '보장각'을 11일 개관했다. 97년부터 짓기 시작한 보장각은 지하층 수장고와 지상2층 전시실을 갖춘 연건평 150여평 규모의 전통목조 양식으로 지어졌다.

보장각은 임자명반자(보물 제495호), 청동은입사향로(유형문화재 제59호), 범종(유형문화재 제60호) 등 옥천사에 소장된 성보문화재 3백점을 순차 전시할 계획이다.

유물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임자명반자'. 반자란 사찰에서 공양·예불시

단신

간을 알릴 때 쓰는 쇠북. 고려 고종 39년에 만들어진 이 북은 축면에 1백 87자의 명문이 새겨진 귀중한 유물이다. 또 보장각에는 영산회상도, 지장탱화, 명부시왕탱화, 각종 고문서와 경판 등 경남 유형문화재 제299호로 일괄 지정된 옥천사 유물 119점도 전시된다.

문화재전문지 잇단 창간
문화재 발굴·보존·현황 등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국문화재신문'과 '박물관 보존과학'이 1일 각각 창간됐다.

(주)한국문화예술의도시

(회장 이금삼)가 창간한 '한국문화재신문'은 타블로이드 크기로 총 24면 격주간지로 발행됐다. 창간호에는 서정재 문화재청장, 원로미술사학자 진홍섭씨 인터뷰를 수록했다. (02)702-4501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이 유물의 보존처리 연구 결과를 엮은 <박물관 보존과학>에는 훈증소독이 사회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훈증소독에 따른 사회부의 안료 변색 및 pH변화 유무 조사', 최초로 확인한 가이시 대 안료인 진사(황화수은)와 철사(산화철)를 소개한 '창녕 교동 제11호분 발견 작품권의 적색안료' 등 9편의 논문이 실렸다.(02)398-5145

북한문화재 인터넷으로 본다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문화재들을 볼 수 있는 '남북 통합 문화관'이 개설됐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초기 화면에서 '문화관' 아이콘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는 3만5천여건의 남북문화재 자료가 제공된다.

북한의 자료는 유물, 유적, 미술, 민속 사진 8822점, 동영상 50점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일반인이 보기 어려웠던 고려시대 중기 금동석가여래좌상 등 국보·보물급 문화재 30여 점도 섞여 있다.

새로운 세기여 달려오라. 미래는 우리가 연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한의학 대학 부속 불교종합병원 건립



인간화·점진화·정보화 21세기 열린 병원

1600년을 이어온 우리 불교사에 새로이 기록될 대자대비의 정화-불교종합병원! 자비공명의 정신을 실천하고 이 시대에 약사여래의 12대원을 실현하기 위해 동국대학교가 일선 신도시에 불교종합병원 건립의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이 주인인 병원, 양한방의 협진시스템을 통해 동시양 의학이 조화되는 병원, 최우수 의료진과 첨단시설에 의한 최상의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병원, 이제 불교종합병원이 21세기 열린 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착공식 및 축막공연 일정

- 일시 1999년 10월 14일(목) 14:00
- 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석사동 (동국대 실험농장 / 이구정)
- 시회 김병조
- 출연 김희환, 신영희 의연인 다수 출연
- 행사담당 교종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캠페인

- 만물영인운동 부채님을 조성하여 모시는 공덕은 수천배 갑니다.
- 백만원 이상 기부자에 원불법단원 내각전 예 개인 또는 가족단체 명의로 불상을 봉안해 드립니다.
- 자비의 벽돌쌓기 운동 2천만 불자가 자비의 벽돌을 쌓으면 약사여래의 대원을 이룹니다.

기금용도 불교종합병원 건립 / 교육시설 확충 / 연구 및 실습 기자재 구입 / 도서선 장서 구입 / 국가고시 육성 후원 등

·동생방법 자비의 벽돌 한 장(1만원)이상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동국사당저금통기(이동) 저금통이 필요한 분이나 저금통을 가득 채운 분께서는 대학입학처 법안(기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용도 불교종합병원 건립 / 교육시설 확충 / 연구 및 실습 기자재 구입 / 도서선 장서 구입 / 국가고시 육성 후원 등

기금접수 ARS안내

7000-119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02)7000-119로 하시면 됩니다)

- 금 액:전화 1통화에 5,000원 (1일 중복통화는 1회만 인정)
- 문의처: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 (02)2260-3300, 2260-3792 ~ 5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